

美 '철강 관세 폭탄'에 EU·中 보복관세 맞불

트럼프 보호무역 갈등 초래 관세 인상 대상 확대될 듯 한국도 직격탄... 시장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보호무역조치에 중국, 유럽연합(EU)이 반발하며 전 세계에 무역전쟁의 조짐이 감돌고 있다. 미국, 중국, EU를 시작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형성한 자유무역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이 같은 보호무역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화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꺾어 먹을 가능성이 있다.

◇ 미 '철강 관세 폭탄'... EU·중국과 일촉즉발=집권 2년 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보호무역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를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발발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방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국 등 특정 국가 예외를 허용하지

관세전쟁, 무역전쟁 번지나

미국
철강 25%·알루미늄 10% 관세폭탄

↕

EU
할리 데이비스·리바이스·버번 등 상징적 미국 브랜드 보복관세 검토

않은 일괄 관세 부과 방침에 주요국들은 즉각 반발했다. EU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

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등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에 보복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장클로드 용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리는 부당한 조치로, 공격 받는 것을 명징하게 앉아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맞불을 놔다. 중국은 대두, 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 철강 수출국 1위인 캐나다도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무역 규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각국의 압력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EU가 그곳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미 엄청나게 높은 관세와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야말로 미국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들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적

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국들이 관세 장벽 쌓기 경쟁에 나서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한 자유무역주의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 당장 성장률 꺾이지 않는다지만... "경제심리·금융시장에 악영향"=한국도 미국발 무역전쟁을 마냥 팔짱 끼고 볼 수만은 없는 처지다. 당장 철강·알루미늄 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가 아니더라도 타격은 있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전반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도 하방 리스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역전쟁 조짐이 올해 성장률을 꺾어 먹는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는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각국의 '입'에서 시작한 무역전쟁이 관세로 현실화·구체화하려면 법령 개정 작업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경제주체 심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낳는다. 고율의 관세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양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당 현종의 수석재상 송경

송경(宋璟, 663-737)은 형주 남하 출신으로 현종 초기 요승과 함께 국정 운영의 기틀을 닦았다. 온화한 인품으로 폭넓게 사랑을 받았다.

요승이 수석재상에서 물러나자 송경이 발탁됐다. 고종때 진사시합에 합격했고 측천후제때 좌대어사중승에 올랐다. 예종이 복위하자 이부상서등중서문하삼품으로 공정한 인사 확립에 노력했다. 예종의 누이 태평공주와 틀어져 초주자사로 쫓겨났다. 현종 즉위 후 형부상서를 거쳐 개원 4년(716) 수석재상에 기용되었다. 풍채와 도량이 깊어서 사람들은 그 글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인재를 선발하는데 힘쓰고 재능에 따라 임무를 주어 관리들로 하여금 각기 그 직책에 어울리게 하였

양으로 행차 중 황제 행렬이 길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자 하남윤을 파직하려 하였다. 이에 송경은 "황제께서 바야흐로 순행을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신하에게 죄를 주시면 장래에 백성들이 그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고 주청해 처벌을 면하게 해 주었다.

717년 의정제도(議政制度)를 부활시켰다. 정관 시대에는 중신들이 정사를 상주하면 반드시 간관과 사관들이 시비를 가리도록 하고 기록에 남겼다. 이에 대신들은 임금을 독대할 수 없었고 은닉하거나 참소할 수 없었다. 송경은 "이제부터 일 중에서 꼭 비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상주해 보고하도록 하고, 사관은 스스로 옛 일에 의거하도록 하라."고 의정제도를 부활하였다. 황제는 이를 수용했지

봄 같은 선정... '유각양춘' 고사 유래

다. 형벌과 포상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다. 황제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도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현종은 그를 매우 공경하여 주장을 대부분 가납하였다. 엄숙한 측천시대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처신이 올곧았다. 동료 장열이 측천의 총애를 받는 장역지와 대립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편에 섰다. 측천황제는 자신의 총신을 비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인품에 감동받아 내치지 않았다. 재상직을 임명받으려 할 때 장안으로 오는 중 환관 양사훈이 영접하려 나왔지만 단 한마디 말도 건내지 않았다. 화가 치민 양사훈이 나중에 현종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황제는 금수저 한 벌을 하사해 송경의 처신을 높이 평가했다.

요승과 송경은 한고조 유방때의 소하와 조참과 비교되었다. 또한 당 태종때의 방현령과 두여화와 같은 반열로 평가되었다. 요승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송경은 정해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일처리 하는 것에 능하였다. 두 사람은 부역을 관대하고 공정하게 하였고, 형벌을 깨끗하고 간략히 하였다. 후일 황제의 인적인 이임보가 재상이 되어 총애를 받으나 예우 면에서는 요승과 송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발탁된 이유가 왕권 강화를 위해 재상의 권한을 억제 하려는 데 있음을 잘 인식하였다. 현종이 낙

만 은밀히 처리해야 할 조정사가 있는 까닭에 황제와 재상간의 갈등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각양춘(有脚陽春)으로 불렀다. 광주 백성들이 비를 세웠다. 송경이 주청하기를 "신이 광주에 있으면서 특별한 공적이 없는데 그들이 아첨하려 합니다. 이러한 풍토를 바꾸고자 하니 중지시켜 주십시오." 황제가 이를 따랐다. 719년 5월 일식이 발생하자 현종은 흰 옷을 입고 풍류를 그만두고 음식을 줄이며 죄수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송경은 상소를 올려 "군자는 진실로 지극한 정성으로 추진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고 주청했다. 평소에 덕을 쌓으면 되는 일이라는 취지다.

달이 차면 기우는 법. 황제의 피곤함이 커져갔다. 720년 불랑화폐인 악전(惡錢)을 엄정하게 금지했지만 강화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일처리 하는 것에 능하였다. 두 사람은 부역을 관대하고 공정하게 하였고, 형벌을 깨끗하고 간략히 하였다. 후일 황제의 인적인 이임보가 재상이 되어 총애를 받으나 예우 면에서는 요승과 송경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이 발탁된 이유가 왕권 강화를 위해 재상의 권한을 억제 하려는 데 있음을 잘 인식하였다. 현종이 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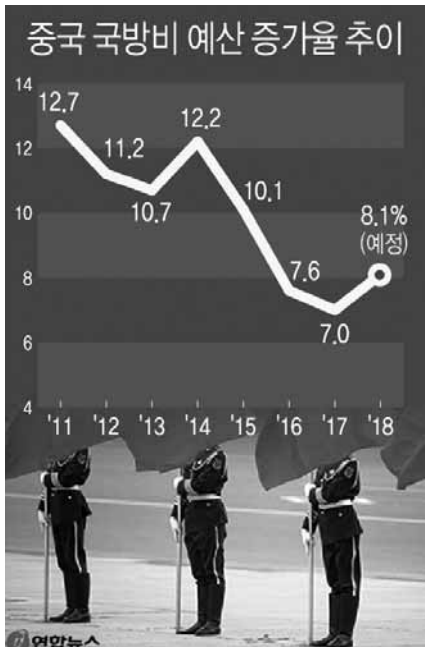
中 전인대서 경제성장률 6.5% 제시 국방예산 8.1% 증가 192조원 책정

중국이 또다시 역대 최대의 군사예산을 제시하며 강군몽(強軍夢)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지출을 작년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 위안(19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전과 같은 두 자릿수 증가는 아니지만, 작년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전문가들의 예상치(7%)도 크게 웃돈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한 6.5%보다도 높은 수치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 오다가 2016년 7.6%, 2017년 7.0%로 3년 연속 한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군사비 총액은 처음으로 1조 위안선(1조443억 위안)을 넘기도 했다.

중국의 근래 국방예산 증가폭이 둔화한 것은 병력 30만명 감군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질 전력과 전략 무기 강화에 필요한 영역으로 예산을 돌려 효율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증가속도를 보인다. 미국에 이어 여전히 세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중국 군사비의 절반 정도인 3위 러시아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인대에서는 국방비 예산을 공개하지 않으며 예산은 폐의혹 논란을 초래했다. /연합뉴스



'시황제 대관식'...중국 전인대 개막 중국의 시진핑(맨 앞쪽 오른쪽)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입장, 주석단에서 대표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 건물: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 건물: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 건물: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 건물: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 건물: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 건물: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 건물: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 건물: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596,70㎡ 건물: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집별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 건물: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 건물: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 건물: 3,998,33㎡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340,4㎡ 건물: 510,09㎡
감정가: 721,968,950원 최저가: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27,403㎡ 건물: 1,454,36㎡
감정가: 1,706,257,600원 최저가: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2,329㎡ 건물: 844,08㎡
감정가: 1,024,812,000원 최저가: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3,319㎡ 건물: 2,480,7㎡
감정가: 3,024,288,500원 최저가: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3,673㎡ 건물: 3,037,52㎡
감정가: 3,744,229,960원 최저가: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